무대 뒤

(눅17:22-37)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대 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KBS TV에서 방송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3회에 미네소타 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 허승희 씨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건축설계회사인 PDI 그룹의 회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설계한 건물 중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미네소타 주에 있는 미니애폴리스 컨벤션센터입니다.
방송으로 이 컨벤션센터 안의 구조를 보여주는 가운데 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홀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무대가 있고 12시 방향으로 관객석이 있지요, 그리고 홀이 크기 때문에 10시 방향에도 2시 방향으로도 관객석이 크게 덩어리로 구분지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면에 있는 관객석과 10시 방향, 2시 방향에 있는 관객석이 스위치를 누르니까 쭈욱 돌아가면서 방향을 완전히 뒤로 향하게 되면서 그 각각이 하나의 방이 되고, 다른 무대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방으로 가려면 사람들이 다 그 의자에서 내려와 다른 방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컨벤션센터는 그 큰 홀에서 모임을 갖다가 나누어질 필요가 있으면 관객은 그대로 앉아있고 관객석이 세 덩어리로 돌아가면서 각기 다른 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무대를 앞에 보게끔 되는 그런 신기한 구조로 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른 무대를 향하게 되는 이 구조, 이것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는 관객들의 뒤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겠죠?

여러분, 무대 뒤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두드러진 상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무관심 아닙니까?
그 무대 위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가수나 배우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 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아무도 무대 뒤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신앙은 이 무대 뒤와 무대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대였던 곳이 무대 뒤가 돼버리고, 무대 뒤였던 곳이 무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실지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일을 할 때 초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여름성경학교 때 그쪽 방면으로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시던 친구 전도사님을 모셔서 인형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리 앞에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그 무대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전도사님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 전에 다른 곳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연예인교회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별나요.
전도사님이 인형극을 시작했는데 거의 절반의 아이들이 양옆으로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 인형극을 보지 않고, 무대 뒤에서 인형을 조종하시는 전도사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라고 막 야단을 치는 것을 제가 놔두라고 했습니다.
공연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인형극이 공연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무대 뒤의 부분들을 보는 것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 큰 경험과 인생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처럼 무대 뒤가 무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움직여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의 허승희 씨가 설계한 미니애폴리스의 컨벤션센터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방향만 바꾸면 무대 뒤가 무대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신앙의 사건이라 이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어제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를 들어 마음이 반경 10Km라고 하면, 하늘나라가 그 반경 10Km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10Km 반경으로 이루어진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 자체가 경계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경계가 되어서 그 경계선인 마음의 안쪽으로 하나님나라는 오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바라느냐 하면, 마음의 바깥쪽, 몸이 있고 몸으로 감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인자의 날 하루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따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루도 인자의 날을 볼 수가 없다는 것과, 여기다 저기다 공간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는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마음을 경계로 해서 지금 모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무대에 쏠려있습니다.
근데 그 무대가 어디냐 하면,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그 마음 바깥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영역이 곧 무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은 시간과 씨줄 날줄처럼 서로 엮여있으면서 우리 세상의 삶의 현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장소를 옮기려면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다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왜일까요?
선민들로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될 텐데, 그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돼서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우리를 식민지로 압박하고 있는 로마가 일순간에 망해버리고, 주변 모든 국가가 우리 선민들의 나라에 복속되는 그런 멋진 하루.
우리에게 광복절이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못했을 거예요.
일제의 압제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이 광복절이라는 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나서 하루 만에 죽어도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현장인 이 역사 속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늘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시고 구주가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시름시름 하면

서 별 볼일 없이 한 맺힌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돈에 한이 맺혀 있고, 건강한 모습에 한이 맺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한이 맺혀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한을 일순간에 풀어주는 그런 날이 온다면, 하루만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마음 바깥의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인자가 너희가 바라는 대로 다스리는 그런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내 생활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돈 걱정 없고, 건강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런 이 지구상에서의 내 생활 속에서의 상황은 주님이 오셔서 단 하루도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에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간이라는 것이 끼어 들어오는 것도, 번갯불이 번쩍 할 때는 서쪽 하늘의 번갯불이 동쪽 끝까지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지구 반대편의 아르헨티나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한국 사람이 본다고 아르헨티나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공간이라는 것이 다 찢어져 없어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동시에 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롯의 시대 소돔이 망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불이 떨어진다는 예감이 전혀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그리고 집 짓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무대에 다 쏠려있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엮어진 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무대에 모든 관심이 다 쏟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마음 안쪽에 계시는 하나님, 시간의 흐름도 공간의 이동도 없는 그런 마음 안쪽 세계에서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마음의 관심을 마음 바깥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쏟고 있을 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찢어

발겨 없어져버릴 것인데,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멸망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소돔이 망할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집 짓고, 하며 살았다.
이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팔고 사고, 당연해요, 당연한 생활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만 기다리고 있으란 얘깁니까?
아니죠.
연예인교회 아이들이 무대 뒤의 전도사님의 모습이 궁금해서 무대 뒤를 무대로 삼고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마음 안쪽이 있고 마음 바깥쪽이 있습니다.
마음 바깥쪽은 시간과 공간으로 엮어져 있는 이 세상이에요.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세상.
여기에 모든 관심을 들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뒤쪽에 있는 무대를 바꿉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 바깥쪽에 있는 무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먹고 마셨는데, 이게 잘못 된 거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아닌 마음 안쪽으로 무대 뒤쪽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않고, 먹게 되고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시간과 공간, 마음의 바깥쪽이 무대가 되어서 이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내가 장가가야지, 내가 시집가야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대 뒤쪽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장가가게 하시고 시집가게 하십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장가갔고 우리가 시집갔습니다.
근데 이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장가가게 하시고 시집가게 하십니다.

또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사기도 하고 우리가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교회 아이들이 무대 뒤의 전도사님께 관심을 가진 것처럼, 마음을 이 세상이라는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게 하시고 팔게 하시고, 집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지니라'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 수난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온통 무대 위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신 게 십자가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이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도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사건 중 어떤 걸 바라보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사건 중에 십자가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그 미니애폴리스 컨벤션센터에서처럼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뒤집혀지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고정되게 되고, 그 동안 무대 뒤였던 하나님이 계셨던 그 천국의 자리가 무대가 돼버립니다.
연예인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무대 뒤가 무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그 자리에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백합화를 봅니다, 백합화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입히셨고 그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가 역사와 시간 속에 있는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때, 우리로 하여금 시집가게 하시고 장가가게 하시고, 사게 하시고 팔게 하시고 집 짓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미니애폴리스의 컨벤션센터에서처럼 그 자리에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교회 아이들처럼 무대 뒤가 무대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사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죽음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방향이 무대 뒤를 향하게 돼서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천국이 나의 관심의 모든 것이 쏠리는 무대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게 하시고, 팔게 하시고 사게 하시고, 집 짓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지라고 하신 말씀, 인격이 있는 곳이라면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제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 관심을 다 받는 무대 위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몸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집 짓고 하는 모든 일을 하게끔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